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4. 5
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

과 장 : 권 재 한

사무관 : 윤 영 구

전 화 : 500-1920

쪽 수 : 5쪽

별첨자료 : '식생활교육 기본계획' 자료

이 자료는 2010년 4 월 6 일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'음식이 세상을 바꾼다'

- 농식품부 등 9개 부처와 유관기관·민간단체가 참여한 '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' 개최 결과, 「식생활 교육 기본계획」 마련
- 환경, 건강, 배려를 녹색식생활 교육의 3대 가치로 설정하고, 녹색 식생활 지침 보급·푸드마일리지 표시 등 범국민적 운동 전개

□ 식생활을 통해 건강 뿐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

□ 정부와 민간 공동의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지역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, 환경과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식생활 교육 기본계획」을 수립·확정하였다.

○ 4.2(금) 녹색 식생활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'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'(위원장 :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, 정재돈 한국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)를 열고 「식생활 교육 기본계획」을 심의·의결 하였다.

□ 이번 계획안은 잘못된 식습관이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, 환경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이다

○ 과도한 영양섭취, 특정식품 편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

등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,

* 비만비율(20세이상) : ('98)26.3% → ('01)29.6 → ('07)31.7

* 당뇨병 추이 : ('96)3.1% → ('02)6.0 → ('04)6.4 → ('07)9.5

○ 과도한 상차림 등 낭비적인 식생활로 연간 18조원의 자원이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되며, 처리비용도 연간 약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.

○ 더불어, 서구화된 식생활로 외국 농식품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.

* 농림축산물 수입 : ('96) 69.9억\$ → ('02) 114.6 → ('04)112.1 → ('08) 231.9

□ 이에, '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'는 식생활교육의 3대 목표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3대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식생활, 성인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생활,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식생활 확산으로 정하고,

○ 3대 핵심가치를 ①환경, ②건강, ③배려로 설정하는 한편,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의 개념 재정립과 함께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「식생활 교육 기본계획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첫째,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뒷받침할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하여

○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「식생활 실태조사」 실시 및 「녹색 식생활 지침」 개발·보급을 추진한다('10.6월).

- 식품 구입시 고려 요인, 식생활 교육 경험, 농어촌 체험 교육,

식품인증제도 인지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해 3년마다 조사하고,

- 녹색 식생활의 3대 분야(환경, 건강, 배려)의 내용을 균형되게 반영한 녹색식생활 지침을 개발·보급한다.

○ 교사, 영양(교)사, 보건교사, 조리사 등을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「식생활 교육 기관」을 지정한다('10.6월).

- 국·공립대학 및 식생활관련 기관·단체 중에서 ①교육과정·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수행역량, ②교육인력의 전문성, ③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.

○ 국내외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 제공하는 「(가칭) 녹색 식생활 정보 114」 포털 사이트를 구축·운영한다('10.6월).

- 국민의 식생활 활동이 친환경, 식생활 체험활동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직접 체크할 수 있는 「(가칭)녹색 물레방아」 식생활 모형도 개발해 보급한다.

○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 「지자체 식생활 교육 위원회」를 구성토록 하고, 「식생활교육조례」 제정을 권장한다.

□ 둘째,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

○ 식품소비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·유통업체가 식품 제품 또는 영수증 등에 푸드 마일리지를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장한다.

- 또한 식품의 생산, 소비 등 전 주기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표준치를 마련하여 '식품 탄소표시인증제' 도입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한다('10~'13).

○ 지자체내 거점지역마다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'학교급식지원센터'의 설치·운영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.

- 생산자 단체,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생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소비토록 한다.

○ 지자체별로 지역 농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유도한다.

* 원주시 사례 : 지역농수산물 사용촉진을 위한 '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제정

□ 셋째,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

○ 매월 「가족 밥상의 날(매월 1, 3주 일요일)」 및 「식생활 교육의 달」(매년 4월)을 지정하여 가정 내에서의 식생활 교육(밥상머리 교육)을 실천 하도록 한다.

- 식생활과 환경, 식사예절 등 가정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「가정식생활 수첩」을 개발하여 보급한다('10.11월).

○ 유치원·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「식생활 연구 학교」를 지정 및 운영하고, 재량·특별활동, 급식시간, 방과 후 교실에 「녹색 식생활체험 교실」도 운영될 예정이다.

○ 지역농업과 전통문화를 연결한 향토음식을 발굴·상품화하기 위해 지역별 농가맛집 육성, 맞춤형 전통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, 한식 및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DB를 구축하고 「한식세계화 포털 사이트」와 연계하여 홍보할 계획이다.

□ 넷째, 어린이 시절부터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배려와 감사의 식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해

-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연계한 「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」을 지정하여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고('10.6월),
- 팜스쿨, 농촌교육농장, 전통식품 체험학교 등과 연계한 초·중·고 학생의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 한다.
-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운동 차원의 가족·학교·회사별 체험 농장 찾기 운동도 전개한다.

□ 상기 식생활 교육 계획은 '09년에 제정한 「식생활 교육 지원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·추진하는 것으로,

- 주요 선진국들도 이와 같은 식생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◆ 일본 : 「식육기본법」 제정('05.7월), '건강일본 21' 프로젝트, 지산지소운동 추진
◆ 프랑스 : 어린이 미각·조리개발 계획 추진, 미각주간 캠페인 전개
◆ 이탈리아 : 스쿨가든(학교농장) 채택, 미각의 산지운동과 '맛의 방주'선언

- 붙임 : 1.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
2.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 내용
3.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(별첨)